

특집

2015학년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합격자 예비대학 진행 보고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012년부터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에 몰두하여 성공적인 대학공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브라임’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입학본부의 지원을 받아 2015학년도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브라임’ 학습공동체의 첫 단계인 예비대학(‘SNU 새내기 Learning Camp’)을 2박3일 동안 운영하였다. 예비대학은 신입생들이 서울대 교수진의 강연을 들으며 대학의 학문 세계를 경험하고, 선후배와의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울대 학생으로서의 소속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능동적 참여와 안전한 예비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013학년도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합격자 예비대학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입생들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2015학년도 프로그램은 캠퍼스 투어, 도전 골든벨, SNU학습유형검사, 조별 장기 자랑 등 학생들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2013학년도 예비대학과 비교하여 강연 횟수를 1회 줄이고 학생 활동 시간을 늘렸으며, 학생들의 몰입도가 매우 낮은 3일차 오전 강연은 선배 강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변경하였다.

예비대학 멘토는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재학생 중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자 37명 중 남녀 각각 10명씩 총 20명을 선정하였다. 3회의 사전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준비도를 높였으며, 특히 안전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멘토 사전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신입생들에게도 본 교육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비대학 숙소를 교내 기숙사로 정하고 강연과 활동이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 ●
박 은 미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팀장

프로그램 참여율, 만족도 크게 향상

이번 예비대학은 2015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과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에서 진행되었으며,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합격자 166명 중 136명이 참여하여 81%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예비대학 프로그램은 크게 대학생활 안내, 학업역량 계발, 선후배 네트워크 형성 3가지 영역의 9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다.

일시	프로그램	강연자/담당자
1/4 (일)	13:00~13:30	집결 및 안전 교육
	13:30~14:00	개회식
	14:00~15:00	대학생활 설계하기
	15:20~16:50	서울대 100% 활용하기
	16:50~17:30	기숙사 이동 및 숙소 배정
	17:30~18:30	저녁식사(기숙사) 및 휴식
	18:30~20:30	동아리 공연과 레크레이션
	20:30~22:00	조별 활동
1/5 (월)	09:30~12:00	나만의 학습전략 찾기
	12:00~14:00	점심식사 캠퍼스 투어와 조별 과제 수행
	14:00~15:00	도전, 골든벨
	15:20~16:50	자기주도학습과 시간관리
	17:10~18:10	미리 들어 보는 서울대 명강의
	18:10~19:40	저녁식사 및 기숙사 이동
	19:40~22:00	조별 장기자랑
1/6 (화)	09:30~11:00	베스트 러너의 학습전략
	11:00~11:30	학습공동체 서브라임 안내
	11:40~12:30	폐회식
	12:30~14:00	점심 만찬

강연만족도 평가를 위해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5점 척도의 4가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전체 강연의 강연만족도 평균은 4.36점으로 2013학년도 예비대학 강연만족도 평균 3.76점에 비해 12% 상승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늘리고 학생들의 폐단에 맞게 프로그램 일정을 조정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 강연을 살펴보면, 최인철 교수(서울대 심리학과)의 ‘미리 들어보는 서울대 명강의’가 4.76점으로 가장 높은 강연만족도를 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 교양강의 중 명강의를 선정하여 미리 들어보고, 대학 강의 수준 및 수업 방식을 미리 이해하는 시간으로 기획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울대 교수님의 실제 강의가 어떤 느낌인지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교수님 강의 정말 잘하세요. 잠이 깨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으로 ‘서울대 100% 활용하기’, ‘베스트리너의 학습전략’, ‘대학생활 설계학기’ 강연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3강좌 중 2강좌가 선배 강연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향후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개설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 ‘리포트 작성법을 포함한 글쓰기 전략’, ‘수업 자료 및 참고 문헌의 읽기와 분석방법’, ‘발표자료 제작 방법’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5년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2015학년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합격자를 위한 입학 전 기초교육을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1일차에는 대학 글쓰기 전략 및 글쓰기 실습, 2일차에는 프레젠테이션 기획 및 발표자료 제작, 실습이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총 3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넘치는 열정, 잠을 설친 장기자랑 준비

예비대학은 낮 시간에는 주로 강연과 캠퍼스 투어 활동이 진행되고, 밤 시간에는 신입생과 멘토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1일차 레크레이션은 웰리댄스 동아리 '쟈스민'과 노래 동아리 '트리플H'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조별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게임이 진행되었는데, 신입생들의 열정과 패기가 넘쳐 강당이 금세 열기로 가득 찼다.

2일차에는 총 10조의 장기자랑이 진행되었다. 최신 가요에 맞춰 군무를 추는 조가 많았고, 연극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조도 있었다. 1등은 남녀탐구생활 연극을 한 6조가 차지하였다. 넘치는 열정으로 밤늦게까지 장기자랑을 연습하는 조가 많아 다른 건물 기숙사 사생들의 소음 관련 민원을 받기도 하였다.

멘토에게도 성장의 시간

이번 예비대학 멘토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평가회가 2015년 2월 6일에 진행되었다. 평가회는 3그룹으로 나누어 멘토들이 기초 설문지를 작성하고,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와 연구원이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멘토들은 자신이 서브라임 활동을 통해 '기회균등선발특별전형'이 특별한 전형임을 깨달을 수 있었고, 나만 알고 있기에 아쉬운 것들을 2015학년도 후배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참여하였다고 동기를 밝혔다. 그리고 이번 예비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 4.16점(5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신입생 4.36점보다 인색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대학의 좋았던 점으로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와 여러 단과대 친구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예비대학의 조별 활동을 통해 여러 단과대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강의와 장기자랑 자유시간이 적절히 배분되어 알찬 캠프였다. 특히 기균 학생들 간의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완해야 할 점으로 '조별로 있을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조별 인원이 좀 많았다. 밤에 놀면서 친해지긴 했지만, 따로 마련된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혹은 조별 공간(모임, 연습 등)이 따로 필요하다 생각한다.' 등 조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예비대학에 참여한 신입생들이 ‘서브라임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이 학생들이 다음해 예비대학과 ‘서브라임’의 멘토로 활동하는 선순환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본 프로그램의 운영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입학 전 교육을 정리하면서...

2015학년도 예비대학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강연자와 운영진이 모인 간담회가 2015년 1월 29일에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예비대학 프로그램 좋았던 점과 개선할 점,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발전방안이 논의되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81%의 높은 참여도와 4.38점의 강연만족도를 통해 이번 입학 전 교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멘토 사전 교육 횟수를 늘려 프로그램 준비도를 높인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일부 학생들의 조별 활동 시간 연장 요구는 예비대학의 목적상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공계 관련 주제나 강연자를 모시는 것도 좋겠다는 기타 의견이 있었다.

운영상의 개선할 점으로 언급된 부분은 기숙사 이용에 관한 것이었다. 기숙사 이용과 입금관련 안내가 매끄럽지 못해 진행에 어려움이 컸다는 점이다. 특히 투숙 학생의 건강진단서 요청을 미리 전달받지 못해 학생들에게 안내하는데 큰 혼란이 있었으며,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기숙사 이용 시에 난방온도가 너무 낮아 학생들이 추위에 떨었고, 이불, 휴지 등 비품 구입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CTL에서는 기숙사 이용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하였다.

‘서브라임’ 학습공동체로 다시 시작

이번 2015학년 예비대학을 통해 ‘서브라임 학습공동체’에 50명의 기회균형선별 특별전형 신입생들이 신청하였다. 이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습주제를 선택하고 팀을 이뤄 매주 1회씩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신입생들이 ‘서브라임 학습공동체’를 통해 기초학력을 다지고, 선후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꽂피워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